



봄 채울 민화의 향연... 매력에 빠지다

제주여유민화연구소
도서관 민화산책전
루씨쑰 아뜰리에서
이성숙 개인전 선배



화려한 색채, 섬세한 선묘의 향연으로 매력을 더하는 민화. 4월, 봄기운을 즐기며 산책하듯 여유로운 시간을 관하는 민화전을 곳곳서 만날 수 있다.

▶따스한 민화산책길 동행=제주여유민화연구소는 3일부터 제주시 탐라도서관과 서귀포 중앙도서관에서 민화전시를 열고 있다. 올해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아 기획된 '제주여유민화연구소와 함께 걷는 민화산책' 전으로,



정새원 작 '아이를 위한 책거리'

이달 30일까지 두곳에서 동시 진행된다. 제주여유민화연구소 문소미 대표는

“민화 속에 존재하는 자유분방한 상상의 세계는 낯은 세계를 알게 보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며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삶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빌어주는 순수한 소망이 담긴 민화 작품들을 감상하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엔 총 22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민화에 담긴 푸른 제주 그리고 폭낭=이성숙 작가는 “보호수로 마을의 습터이자 사랑방으로 제주인의 삶을 지켜”은 제주 마을의 아름

드리 '폭낭'(뽕나무의 제주어)을 소재로 민화를 그려,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영동의 계절까지, 계절별 변화하는 신비로운 폭낭의 모습이 다채로운 색채로 펼쳐진다.

여기에 영주십경도, 연화도, 파초의 꿈, 책가도 등 작가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된 이성숙 개인전 '푸른 제주 그리고 폭낭'이 서귀포시 보목로에 위치한 루씨쑰 아뜰리에서 4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오프식은 6일 오후 2시 진행되며, 이날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작지만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 오롯이

나강 작가 서울 제주갤러리 공모선정 개인전
오는 10~22일까지... 신작 30여 점으로 채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제주 갤러리(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의 올해 공모선정전이 나강 작가의 'Don't Worry, Be Happy(돈 워리, 비 해피)'로 문을 연다.

나강 작가는 지극히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자유로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으

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19회와 다수의 단체전·아트페어에 참가했으며, 제주도립미술관·설문대 여성문화센터·서울아산병원·제주 하

나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이번 개인전은 나강 작가 특유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생명력을 가득 담은 작품으로 꾸러진다. 전시장

은 작가의 신작 30여 점(평면·입체 작품)으로 채워지는데, 특히 해녀를 주제로 다양한 오브제(소라, 유리구태와, 조개껍데기 등)를 사용한 설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끈다.

제주갤러리는 “작가의 작업은 평면·설치·입체 등 작품의 형식을 가리지 않고, 제주 자연의 풍광과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명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작지만 행복했던 소중한 기억을 담아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나강 작가의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올해 제주갤러리는 전시 대관 공모를 거쳐 선정된 13명의 작가(팀) 전시를 내년 2월 3일까지 이어간다. 오은지기자



나강 작 '벚꽃나들이'



나강 작 '해녀'

'인생2막' 시니어모델들의 화려한 도전

제주상생커뮤니티 빌레 제2회 패션콘서트

지역 시니어모델들이 화려한 런웨이를 선보인다. 오는 13일 제주민속촌에서 제주상생커뮤니티 빌레가 펼치는 두 번째 '패션콘서트'를 통해서다.

제주상생커뮤니티 빌레(대표 엘리킴)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세 이상의 도민 및 표현 지역주민

들이 모여 지난 2022년 6월 발족한 재능기부단체다.

'나도 셀럽이고 싶다'는 마음들이 모여 시니어 모델 워킹 수업(바른 자세, 자세 교정, 바르게 걷기, 모델 포즈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인생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나누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패션쇼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표선에 위치한 허브동산에서 개최한 첫 패션콘서트도 그 시작이었다.

올해 두 번째 패션콘서트는 37명의 모델이 참여하는 시니어패션쇼와 공연(플루트, 오카리나, 제주점핑)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문화가 쏙지

'남성합창의 매력' 아카데미

제주아트센터는 2024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브라보! 남성합창의 매력'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19세 이상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 모바일 신청서 또는 이메일(artsjeju@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상반기 교육이 마무리되면 성과 발표회가 진행된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소장은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어린이 발상 미술대회 공모

(사)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가 아 이들의 상상을 응원하는 '제4회 제주 어린이 발상 미술대회' 1차 온라인 공모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발상 미술대회'는 어린이 스스로 생각을 키우고 그림에 대한 경험을 다양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차 온라인 공모 주제는 '세계 속의 우리 제주'로, 참가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이다. 접수는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 등을 내려 받은 뒤 이메일(jeuart8622@naver.com)로 하면 된다.

제주미협은 1차 온라인 공모 심사를 거쳐 30명을 선정해 이달 28일 2차 현장 발상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은지기자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사이트 타카코의 원작 도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강교육 어린이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이 이달 27~28일(오전 11시, 오후 2·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무대에 오른다.

'콧구멍을 후비면'은 콧구멍을 후비고 이 닦기를 싫어하고, 손가락을 짹짹 빨고, 배꼽을 자주 찌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상상력 넘치는 뮤지컬로 보여준다.

공연을 주최하는 극단 트명은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행동의 결과를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엮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색다른 환상의 무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수축상

대통령표창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이사장 / 예담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이재문 외 회원 일동

수축상

2024 올해의 新 한국인 대상



김미자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서귀포시체육회 부회장)

2024 올해의 新 한국인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체육회 임원협의회

취득

박사 학위 (문화재보존학)



강보윤
부: 강충원(前 건보공단 지사장) / 모: 김민희(前 중등교사)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일동 (강효정, 강은정, 강윤정, 강은석)

등단

수필가



강희은

『수필과 비평』(2024년 3월호) 제269호 신인상에 당선하여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면여성축구단